

관람표에 반영된 색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지도의 길에는 걱정없이 대할수 없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어느해 봄날 건설중에 있는 한 봉사건물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 아직 미완성된 계단식관람석중심에 서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가리켜드리는 관람석에는 구획별로 5 개씩 림시로 설치한
의자들이 놓여있었다.

중심구획에는 빨간색, 어떤 구획에는 푸른색 또 다른 구획에는 풀색으로 된
의자들이 각기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앞으로 관람석에 서로 다른 색깔들로 구획을 지어 의자들을 설치하면
보기에도 무척 좋을것같아 일군들의 마음은 흐뭇해졌다.

그때 구획마다 놓여있는 의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체육관에 놓은 의자도 색깔이 구획별로
다르다고 하시며 착상을 지지해주시고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시는듯 말쑼을
끊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관람홀에 구획별로 색깔이 다른
의자를 놓겠다고 하는데 관람표의 색깔도 의자의 색깔과 같이 만들어주면
관람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편리할것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저 보기에나 좋게 여러가지 색깔의 의자들을 설치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관람자들의 편의보장과 결부시켜 관람표를 특색있게 만들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들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숭엄히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속깊이 새기였다.

모든 착상과 창조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이라는것,
그것을 떠나서 창조의 그 어떤 의의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